

사회

사유지 소송에 쫄쫄매는 구청들

“도로·공원 편입 땅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재판 속속 패소

5개구청 100건… 문제 토지만 매입 소송 ‘꾼’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 역 5개 자치구에 사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면서 연간 수억원의 임대료까지 지출하는 이종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분쟁 소지가 있는 토지만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꾼’까지 생겨나면서 자치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구별로 도로나 공원 등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건수는 ▲동구 34

▲서구 7 ▲남구 32 ▲북구 15 ▲광산구 9 등으로 모두 97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정을 거쳐 임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5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가 승소 13건, 패소 8건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각 자치구가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남구가 2억7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억8100만 원, 서구 5400만 원, 북구 4686만 원, 광산구 1787만 원의 순이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급증

하고 있는 것은 토지 매매나 상속·경매 등을 거쳐 취득한 토지 소유자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분석된다.

광주시 동구에 사는 김모(65)씨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구청을 상대로 매달 20여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상속·매매 등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찾고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특정 토지를 매입해 부당 이득금을 챙기려는 이른바 ‘꾼’까지 있어 소송건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로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각 구청이 관련 예산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이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 백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매년 토지가격의 2.5% 수준인 임료를 주고 ‘짭질 처방’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자치구 한 관계자는 “매년 소송에 대비해 구 예산에 토지 구입비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거부당하고 있다”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토지 매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일가족 3명 살해 후 방화 참사

순천서… 사체서 흥기 자국 치정 살인 의혹

불이 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0시께 순천시 덕월동 모빌라 3층에서 불이 나 3층에 거주하던 김모(여·41)씨와 김씨의 큰 아들(22)과 작은아들(8)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와 작은 아들은 안방에서 큰 아들은 작은방에서 숨져 있었다.

다.

경찰 검사 결과 김씨와 큰 아들은 가슴 부분을, 작은 아들은 등 부부를 포함해 3곳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또 김씨 모자가 발견된 방 침대 시트에서 휨발유로 추정되는 가연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누군가 이를 3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숨진 큰 아들이 지난 25일 평소 삼촌으로 따르는 S(41)씨의 심부름으로 휨발유를 구입한 영수증이 발견되고 사건 당일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S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적을 추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S씨가 최근 숨진 김씨 집을 자주 찾았으며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잠자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김씨의 큰아들이 숨지기 전 S씨의 심부름으로 휨발유를 사려 갔다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년 전 제훈해 성이 다른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며 현재 남편은 온두라스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3층 김씨의 집에서 시작해 4층과 5층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주민 7명도 유독가스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김씨와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묘목 심는 고사리손

광주시 북구는 ‘제67회 식목일’을 앞두고 27일 오후 동림동 영산강 제방 둑길 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북구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묘목을 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가족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광산경찰도 아버지(70)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1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박모(4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부경찰은 27일 어머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장모(여·4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신구 송정동 한 현금지급기에서 어머니(62) 명의로 0.5cc를 주입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불법시술하고 165만 원을 받아 쟁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아버지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대금을 연체해 박씨 아버지의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됐다”며 “최근 신용불량자들이 부모나 형제 명의를 사용해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심형래 대출금 패소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주) 영구아트와 대표이사 심형래 감독에게 25억원 상당을 갚으라면 낸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 (주)영구아트는 영화 ‘디워’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스위스 측과 연이 10%에 55억원을 빌리면서 개봉일부터 5년 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지급하는 내용의 PFI대출약정을 맺었다. 심 감독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했다.

/연합뉴스

은행 여직원 탈의실 들어가 지갑 솔직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과 짐질
방을 전전하던 20
대가 은행 여직원 탈의실에 침입해 지갑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2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송모(22)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55분께 모 은행 건물 2층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웃장에 보관중이었던 현금 24만원 상당을 훔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 주변 PC방과 짐질방을 수색해 범인을 붙잡았다”며 “젊은 나이에 빙동거리다 여자탈의실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야 되겠느냐”며 혀를 끌끌.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OO학교 합격 현수막은 인권침해”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유명 고교나 대학, 자격시험 학적 죽하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특정학교 학적 게시판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에도 광주·전남 9개 중·고등학교가 유명고교나 대학, 사법시험 등에 합격할 경우 이를 자랑삼아 현수막을 교문 등에 게시했다”며 “해당 학생들은 이로 인

해 학법과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등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동의없이 게시물을 내걸어 학생들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도 침해받았다”며 “교육감,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교직원, 학부모는 학벌사회를 조성하는 특정학교 학적 게시판 문화를 없애고 학생 인권의 존중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학적 게시판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지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증(물 흐름),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울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는 조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짐증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혈생의 경우 기력이 나빠지거나 짐증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

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 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

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04 가지의 약재가 기밀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드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멎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뿐만 아니라 고기집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만기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년간 비염을 중점적

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04 가지의 약재가 기밀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뿐만 아니라 고기집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